

디지털타임스

2위 메디톡스 판매중지에... 시장 재편 촉각

기사입력 2020-04-26 18:20

메디톡스 공백 선점경쟁 치열

3위 대응제약 시장확대 노려

중소업체들도 발빠른 움직임



메디톡스의 주름치료 개선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노스). 메디톡스 제공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2위 사업자인 메디톡스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으로 경쟁구도가 재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유통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절차 착수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의 위기가 경쟁 업체들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후발 주자들도 이번 건을 기회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메디톡스는 국내 보툴리눔독신 시장에서 2008년 26%(업계 추정)에서 2017년 50% 수준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왔고, 현재 휴젤의 뒤를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470억원(2019년 기준) 규모의 국내 보툴리눔독신 시장에서, 휴젤과 메디톡스가 각각 41%, 36%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휴젤이 610억원, 메디톡스가 540억원대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의 이번 처분으로 국내 보툴리눔독신 시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메디톡스의 공백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1위 사업자인 휴젤의 독식구도, 또는 3위 사업자인 대웅제약의 시장 확대, 다른 '뉴 페이스'들의 활발한 시장진입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위 사업자인 대웅제약의 경우, 지난해 100억원 초반대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2위 사업자 메디톡스의 공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얼마나 가져갈지가 변수다.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들도 보툴리눔독신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이니바이오 등 4개 업체가 신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유바이오로직스가 에이티지씨와 공동개발 중인 보툴리눔 독신제제에 대한 임상 3상 IND를 승인받는 등 시장 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 제약사도 시장에 새롭게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동화약품이 바이오업체 제테마와 보툴리눔독신 치료제 공동개발을 선언했다. 양사는 미용 목적을 제외한 치료 영역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전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당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 2, 3위 업체들에게는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후발주자들도 이를 시장 진입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7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생산과정 상의 문제일 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9&aid=0002595403>
